

# PEOPLE

2025년 4월 1일 화요일

## 부영그룹, 산불 피해 지원

### 5억 기부...“희망 잃지 않길”

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동해안 해변까지 번진 역대 최악의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부영그룹이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최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5억원을 기부해 눈길을 끈다.



이번 기부는 예상치 못한 산불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진화와 복구, 이재민 지원 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기부금은 경상도 일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대형 산불 피해 현장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긴급 구호 활동 및 생필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은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해 상심이 클 피해 지역 주민 분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빠른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산불이 진화, 이재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 남광주농협

### 조합원 자녀 대학생 학자금 전달

남광주농협은 31일 조합원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사회 인재양성을 위해 조합원의 대학생 자녀 42명에게 총 4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학자금 지원은 농업인 조합원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미래 농업·농촌의 젊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남광주농협은 1996년부터 매년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올해까지 총 1702명에게 14억 90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했다.

이영중 남광주농협 조합장은 “조합원 자녀들이 학업에 정진해 지역사회를 이끄는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사업으로 조합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광주 서부경찰

###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강화

광주 서부경찰이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강화에 나섰다.

서부경찰은 봄철 나들이객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31일 밝혔다.

이는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아 활동량이 증가하고 고령자가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고령 보행자·운전자 교통사고 현황·형태에 대해 살펴보고 어르신들의 잘못된 보행 및 운전습관을 바로 잡으려 마련됐다.

이번 활동은 서구 내 공원당 경로당 등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함께 전동휠체어 후면에 고위도 반사지를 부착해 시인성을 확보했다.

서부경찰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 및 운전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해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과 현장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i404@gwangnam.co.kr

## 국제로타리 3710지구 7지역, 외국인주민 지원

# “외국인주민 관심에 감사...광주 정착 큰 도움 될 것”



### 외국인주민센터에 1000만원 상당 물품 전달 책상·의자·방송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 도움

광주시는 국제로타리 3710지구 제7지역(대표 이준행)이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1000만원 상당의 기부물품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신경구 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을 비롯해 국제로타리 백현옥 3710지구 총재, 제7지역 이준행 회장 및 총무 등 9개 클럽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준행 제7지역 회장 주관으로 전달된 기부물품은 1000만원 상당의 책상, 의자, 방송용 장비 등이다.

광주외국인주민센터는 지역 외국인주민들의 한국어 및 정보화, 초기정착 교육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백현옥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는 “이번 기부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국제로타리 3710지구에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기부물품은 외국인주민의 광주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외국인주민센터는 지난해 4월 문을 열어 외국인주민의 체류·노무 상담, 통·번역, 한국어교육 등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초당대학교, 새내기와 선배의 FUN한 콘서트

### 소통 활성화·학교 미래 비전 공유 등

초당대학교는 최근 본관 국제회의장에서 ‘새나기과 학과 선배의 FUN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선·후배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학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입생과 재학생 270명이 참여했다.

토크 콘서트에 참여한 서유미 총장은 학교의 미래 비전과 계획을 공유하고 학생들의 대학 생활, 진로, 취업 등 접의 응답을 진행하는 등 학생들과 허심탄회한 소통으로 눈길을 끌었다.

행사에서는 총학생회의 대화 시간도 진행됐다. 재학생과 신입생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중간에 경품 추첨도 이뤄져 시종일관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강병수 항공공정비학과 학생은 “학



초당대학교는 ‘새나기과 학과 선배의 FUN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토크 콘서트에 참여한 서유미 총장.

교의 비전과 계획을 듣고 내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며 “새나기들과 재학생들이 함께 소통하는 모습이 정말 뜻깊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가 정말 즐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초당대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소통과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무안·이윤기 기자 leek2123@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분량농협 사랑나눔농장에서 ‘영농후 환경애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을 실시했다.

## 농협 광주본부, 영농폐기물 수거사업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분량농협 사랑나눔농장에서 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 분량농협 분회 회원들과 함께 ‘영농후 환경애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영농후 환경애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은 깨끗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농가주부모임 회원 및 농협 임직원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10t 상당의 폐농약병과 폐비닐을 수거하고 분류작업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교육을 통해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및 영농폐기물 분리 배출 이행을 위한 결의의 시간을 갖고 이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원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행복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을 가꾸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몽골 문화사절단, 아트페스티벌 관련 동구 방문 몽골 수도문화예술국제교류 사절단은 31일 동구청 소회의실을 방문해 2025 아시아포크 페스티벌 및 나담축제 관련 사항들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광주시 동구

## 국민연금, 청년 대상 회사 탐방·취업 멘토링

### 연금개혁 의견 청취·신규 직원 조연도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진)는 최근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 지원을 위해 회사 탐방 및 취업 멘토링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23년부터 광산구 청년도전지원센터와 함께 진행해온 국민연금 기관탐방 프로그램은 국민연금 바로알기 특강을 통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연금 개혁 관련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공단 채용제도에 대한 설명과 취업멘토링 시간을 통해 최근 입사한 신규 직원들이 취업수기를 발표하며 직장 생활 경험을 공유했다.



설명된 국민연금공단 광주본부장은 “지역사회 청년들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공단 취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광주도시공사는 MZ세대 직원의 의견을 공사 정책에 반영하고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혁신 주니어보드를 새롭게 구성했다.

## 광주도시공사, 혁신 주니어보드 발대식 개최

### MZ 직원 창의적 아이디어·소통으로 혁신행정 기대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MZ세대 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공사 정책에 반영하고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혁신 주니어보드를 새롭게 구성했다.

공사는 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창의와 혁신의 도시공사’를 실현하기 위해 31일 혁신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서는 혁신 주니어보드 직원들과 김승남 사장이 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새롭

게 출범한 혁신 주니어보드는 입사 1년 이하의 MZ세대 직원 35명으로 구성됐다.

직원들은 분기별 정례회의, 역량 강화 워크숍, 주니어보드 선진지 견학, 성과공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혁신 행정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승남 사장은 “광주도시공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니어보드 직원들의 유연한 사고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각을 기대한다”며 “창의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미래 가치를 높이는 지속가능한 광주와 도시공사의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



광주시서구새마을회, 평화의 숲 조성 나무심기 광주시서구새마을회는 최근 매월동에서 새마을지도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의 숲 조성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제공=광주시서구새마을회